



캐나다 금융기관감독청(OSFI) :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 가이드라인 발표

박정희 선임연구원

요약

캐나다 금융기관감독청(OSFI)은 금융기관(FRFIs)이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한 6개 원칙과 기후 관련 금융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함.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해 시나리오를 마련하도록 함. 금융정보 공시는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및 익스포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캐나다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 캐나다 금융기관감독청(OSFI)은 금융기관(Federally Regulated Financial Institutions; FRFIs)이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한 6개 원칙과 기후 관련 금융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함¹⁾
 - OSFI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이번 초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 후 2023년 10월부터 기후 위기에 대응한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등의 최종지침을 시행할 예정임²⁾
- 금융기관(FRFIs)은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거버넌스, 정책 및 관행을 마련해야 하며, 최고경영진은 금융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업의 감독 기능 및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원칙 1, 2)
 - FRFIs는 기업의 장·단기 전략, 자본 및 재무 설계에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적절한 거버넌스 및 정책을 마련해야 함
 - 최고경영진은 기업의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내부통제프레임워크 및 전사적위험관리(ERM)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감독 기능 및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 또한 금융기관(FRFIs)은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에 민감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적절하게 책정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하며, 기후 관련 재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해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함(원칙 3, 4, 5)
 - FRFIs는 기후리스크에 민감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적절하게 책정하고 FRFIs의 위험성향평가(Risk Appetite Framework)에 따라 익스포저를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함

1) OSFI(2022. 5), "OSFI consults on expectations to advance climate risk management"

2) 이번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 시나리오 분석은 캐나다 금융기관감독청(OSFI)과 6개 금융기관(은행, 생보사, 손보사 총 6개사: The Co-operators Group Limited, Intact Financial Corporation, Manulife Financial Corporation, Royal Bank of Canada, Sun Life Financial and TD Bank Group)이 공동으로 참여함

-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 데이터는 지역(geographies)이나 부문(sectors), 상품(products) 등 위험집중도에 따라 관련 익스포저를 식별하고 리스크에 대한 적시 보고가 가능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내부 보고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기후 관련 재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연속성 및 재해복구 계획을 위한 재해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기후데이터 분석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FRFIs는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후 관련 리스크 프로파일, 비즈니스 모델의 탄력성에 미치는 리스크 영향을 평가, 재무적 성과 이외에 비재무적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 요인을 식별하고 잠재적 손실을 추정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금융기관(FRFIs)은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를 내부자본적정성평가(ICAAP)나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ORSA)에 통합해야 하고 충분한 자본 및 유동성을 확보해야 함³⁾(원칙 6)

〈표 1〉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 가이드라인(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원칙 1	(거버넌스)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절한 거버넌스, 정책 및 관행 마련
원칙 2	(최고경영진의 책임)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업의 감독 기능 및 책임 명확화
원칙 3	(리스크 관리) 기후리스크에 민감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적절하게 책정·관리하는 프로세스 마련
원칙 4	(기후 시나리오 분석) 기후 관련 재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시나리오를 마련
원칙 5	(스트레스 테스트)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후 관련 리스크 프로파일 등 모델에 미치는 영향 평가
원칙 6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자본 및 유동성 확보

자료: OSFI(2022. 5), “OSFI consults on expectations to advance climate risk management”

○ 기후 관련 금융정보 공시는 금융기관감독청(OSFI)이 금융기관(FRFIs)의 재무상태 및 익스포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공개함으로써 캐나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예금자, 채권자 및 보험계약자 등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 기후 관련 금융정보는 시장이나 기업의 투자전략, 재무제표 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구체적인 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투자 의사 결정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FRFIs가 사용하는 데이터 및 주요 가정(key assumption) 등을 기반으로 해야 함
- 공시 정보는 검증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된 용어들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거나 정의되어야 함
- 기업 규모가 크거나 좀 더 복잡한 비즈니스 라인을 보유한 경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FRFIs는 공시의 양과 수준이 일반 기업보다는 높아야 하며, 세부 정보가 상대적으로 더 방대하고 사용자가 장기간 일관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시되어야 함

3) ICAAP(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는 경영상 직면하는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인식, 평가, 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부자본을 가용자본과 비교하는 등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는 내부모형을 통해 위험관리체계 및 지급여력의 적정성을 스스로 평가·관리하고 감독당국이 이를 점검하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로 지급여력을 정기적으로 평가 후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것임